2013년 4월 (제 7호)
National Maritime Museum Webzine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바다를 꿈꾼다

박복남

여명을 안은 일출이
바다에서 꿈을 건진다

마음을 열고
바다를 힘껏 안았네
물고기 한 마리가
힘차게 요동치고 있었고
수도 없이 부서지는 파도 속에
물방울은 방울방울로 만들리고

그 안에서 나는
모시옷 곱게 입으신 옛날의 어머니를 만나고
끝없는 바다를 보고
나를 만나고
작은 물고기를 만나고
나의 아들을 보고
나의 아들의 아들을 만나고
여명을 안은 일출이
바다에서 꿈을 꾸고 있었네

박복남
한맥 문학 신인상
한국불교문인협회 이사
부산문인협회 회원
부산시인협회 회원
사)부산여성문학인회 재무국장
부산여류시인협회 감사
부산불교문인협회 이사
동래문인협회 회원

출처 : 「바다를 꿈꾼다」, 박복남, 세종출판사

윤치인〈갯벌의 추억〉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CONTENTS

PART 01 열린마당 03
바다의 독수리 海嚴豪鷲

PART 02 박물관 둘러보기 05
바당에서의 삶, 그리고 숨비소리 이야기

PART 03 기증전시 07
도시어부가 都市漁父歌

PART 04 소장품 이야기 09
물소중이(해녀복)

PART 05 박물관 사람들 11

PART 06 박물관 교육행사 12

PART 07 박물관 소식 13

PART 08 관람후기 14

열린마당

바다의 독수리 海巖豪鷲

바다 가운데 솟아난 태호석 太湖石 처럼 구멍이 숭숭한 신비감마저 깃든 큼직한 바위, 그 주변을 넘실대는 힘찬 파도, 화면 뒤로 안개에 의해 슬며시 사라지는 수면이 주는 침묵과 너른 여백, 바위 정상에서 무언가를 노리는 독수리는 화면 내에서 큰 비중으로 보이지 않으나 긴장감이 전해오는 간략하나 정확한 묘사와 취한 자세에서 위용이 잘 드러난 독수리 한 마리. 속도 있는 활달한 붓질로 먹물 위주이되 옅은 푸른색과 옅은 갈색을 입혔다. 바위는 제주도 용두암 龍頭岩 이 분명하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변형을 시도해 일종의 추상미 抽象美 마저 감지케 한다. 이를 그린 화가의 특징 있는 자신감 넘치는 필치를 잘 보여준다. 〈해암호취 海巖豪鷲 〉는 '조선의 그림 신선 畵仙 ' 김홍도 金弘道(1745–1806이후)의 명성에 걸맞는 걸작이다.

우리 옛 그림에서 매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매사냥으로 길들인 수진이 해동청 海東靑 을 비롯해, 나무에 앉아서 새나 토끼 등 사냥 대상을 노리는 鷹視 형태가 일반적이며 여러 화가들에 의해 즐겨 그렸다. 정홍래 鄭弘來 (1720–1791이후)는 짙은 채색으로 넘실대는 파도 위에 붉은 태양과 함께 바다 가운데 돌출한 바위에 앉은 늠름한 자세를 취한 매를 그린 한 정형을 이룩한다. 이 그림 또한 후배 화가의 같은 계열로 보이나 그 틀을 깬 진일보한 면을 엿볼 수 있다.

조선 후기는 회화는 잘 알려진 우리 산천의 아름다움을 독특한 구성과 화풍으로 펼친 진경산수, 그 안에서 익살과 낙천으로 펼친 일상사를 담은 풍속화, 그리고 사실적인 초상화와동물 그림 등 우리나라 회화사에 있어 독자성과 고유색이 두드러진 눈부시게 빛나는 시기이기다. 동물 소재의 경우는 사실주의 묘사로 '변 고양 卞古羊 ' · '최 메추리 崔鶉 ' · '남 나비 南蝶 ' 그리고 물고기의 장한종 張漢宗(1768–1815), 매 그림의 정홍래처럼 한 가지를 소재로 이름을 얻은 화가들이 다수 등장한다.

일반인에겐 흔히 풍속화의 대가로 잘 알려진 김홍도는 산수, 인물, 화조, 사군자 등 그림의 모든 장르에 두루 능했으며 시문과 서예 그리고 악기에도 능해 서구의 르네상스 맨에 비견되는 거장 巨匠 이다. 그는 마치 옛 그림에 등장하는 고사인 양 키가 크며 훤칠한 백석미남인 선풍도골 仙風道骨 은 임금의 명만 듣고 그림을 그린 대령화원으로 임금을 가까이서 모셨다 仙官 . 나이 32세 그린 리움 소장 국보 제139호인 〈군선도 群仙圖 〉가 알려주듯 신선 그림으로 화가로써 이름을 얻었으니 '조선의 그림 신선 畵仙 ' 이란 칭호는 참으로 제격이 아닐 수 없다.

그를 제외한 조선후기 화단은 상상할 수 없다. 신윤복과 더불어 풍속화의 쌍벽 雙璧 으로 5백 년 넘게 견지한 조선왕조 전체를 통해 초기의 안견과 말기의 장승업과 함께 '삼대화가' 에 든다. 한민족의 어질고 착한 심성과 낙천과 익살이 밴 삶의 이모저모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화폭에 담았다. 우리 산천을 배경으로 그 안에 깃는 주변에서 친숙한 해오라기며 까치는 서정성이 돋보이는 맑고 화사한 풍광으로 한 수의 시를 대하는 듯 그야말로 '조선적인, 너무나 조선적인 그림 세계[畵境]' 가 아닐 수 없다.

그의 나이 50줄에 접어들어 일괄로 그린 화첩 말미에 간기를 남긴 명품첩이 현존한다. 1795년 그린 『을묘년화첩』(10폭)과 그 이듬해인 1796년 그린 보물 제782호로 지정된 『병진년화첩』(20폭)이 잘 알려져 있다. 하나같이 무르녹는 필치로 한자문화권에서 중국이나 일본과 구별되는 우리 그림의 독자성과 특징을 잘 드러낸 걸작들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단원 탄신 250주년을 기념해 국립중앙박물관과 간송미술관 및 호암미술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단원 김홍도' (1995.12.19–1996.2.25)을 통해 한 자리에서 공개되었다. 특히 전자는 낱폭으로 나뉘어져 역관출신으로 거부 巨富 인 김한태 金漢泰 (1762–?)에게 그려준 것으로 현재 3점만이 알려져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여기서 소개되는 〈해암호취〉 이다.

물은 장마와 홍수, 바다 그 건너가 섬이며 섬은 다름 아닌 귀양 장소며 유배지 流配地 이기에 우리 인류에게 물은 부정적인 의미도 없지 않다. 그러나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세계 4대문명의 발상지가 강이니 아울러 물은 문명탄생의 젖줄이다. 섬나라는 아니나 3면이 바다에 접해있는 우리는 이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은 아니다. 하늘 길이 열리기 전 바다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유일한 출구였다. 미래와 미지에 대한 강한 호기심과 더불어 강한 도전을 요구한다. 그러나 조선말 쇄국정책 鎖國政策 은 근대화 과정에 있어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린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잘못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독수리의 멈춤은 너른 세상으로 힘차게 날기 위해 잠간 숨을 고르는 순간일 뿐이다.

이원복(국립중앙박물관 특임연구관)

해암호취, 김홍도, 1795년, 23.2x27.7cm, 「을묘년화첩」, 개인 소장

박물관 둘러보기

바당에서의 삶, 그리고 숨비소리 이야기

제주도는 지금으로부터 약 1백만년 전인 신생대 제4기에 화산활동 때문에 형성된 화산섬이다. 그래서 제주도 해안 대부분은 화산암이 노출된 암석해안이다. 화산섬이라는 지리적 환경은 바닷가를 들쑥날쑥한 암초들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사방둘레는 칼날같은 돌들이 묶여 있어 갯가에는 배를 댈 곳이 없다. 四圍劍石束立 浦邊無可泊舟 [이형상 李衡祥, 「남환박물 南宦博物」, 1704년(숙종 30년)]"고 하였다. 이러한 폐쇄성 때문에 육지와는 다른 특이한 민속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산간부락을 제외한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반농반어의 생활을 하고 있다. '바당'은 제주도 사투리로 바다를 뜻하는데, 이곳 바당은 한 · 난류와 연안 수가 교차하여 풍부한 어장을 형성하고 있다. 제주도 사람들은 바당에도 밭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들 공동의 삶터인 '메역밧(미역이 자라는 곳)', '자리밧 (자리돔 어장)' 등에서 어로활동을 통해 생활을 일구며 살아왔다.

제주사람들은 예로부터 바당의 특성에 맞게 어로도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갯곳(밀물 때는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밖으로 드러나는 바닷가)에서는 낚시, 거낫, 작살을, 바다에서는 풍선 風船과 테우를 타고 나가 수경을 이용하여 물고기와 미역을 살폈고, 낚시나 국자 모양 그물인 사둘로 갈치 · 옥돔 · 자리돔 등을 잡았다. 그 외에 돌출된 낭떠러지 사이에 드리워 잡는 덕그물이나 돌그물인 원(개)에서 족바지 등을 사용하여 물고기를 잡기도 하였다. 제주에서 소금생산은 그리 많지는 않으나 '소금빌레'라 부르는 넓고 평평한 돌소금 밭에서 주로 소금을 생산하였다. 지금도 애월읍 구엄리에서는 돌소금 밭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이미지출처 : 해녀박물관 제공

제주의 어로 민속 중 가장 독특한 점은 물질을 통해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녀 海女 가 있다는 점이다. 해녀는 잠녀·좀녀·좀녜 潛女, 잠수·좀수 潛嫂 라 부르는데, 이들은 농사일을 하다가 물때가 되면 바다로 나가서 물질을 하였다. 해녀는 대개 12살 무렵, 늦어도 15살 무렵에는 해녀로 입문하며, 10여 년의 수련이 필요하다고 한다. 해녀는 하군 下軍 부터 시작해서 그 기량에 따라 중군 中軍, 상군 上軍, 대상군 大上軍 으로 나눈다. 해녀들의 공동체의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불턱은 해녀들이 물질을 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거나 작업 중·불을 쬐면서 쉬던 장소이다. 물소중이를 입고 물질을 할 때는 바닷물 속에 오래 있지 못하여 불을 쬐다가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불턱이 필요했지만, 1970년대에 고무로 만든 잠수복이 등장하면서 불턱은 점차 사라졌다. 지금은 온수시설을 갖춘 해녀탈의장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불턱은 해녀들에게 단순한 휴식공간만이 아니라 지식전달의 장소이며, 정보교환의 장소였다.

해녀들의 입수시간은 1분, 길게는 2분 정도이다. 수면 아래에서 소라나 문어, 해삼 등을 잡고 다시 수면 위로 솟구치기를 반복하는데, 이를 '숨비다', '조물다'라고 한다. 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수면 위로 솟구치면서 "호~이!"라고 하면서 숨을 비우는 깊고 맑은 소리를 '숨비소리'라 한다.
해녀들의 모습은 1702년에 그려진 탐라순력도에서도 그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들은 반농반어의 고된 생활 속에서도 사회와 가정경제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19세기 말부터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국외로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한 개척자들이기도 하였다. 또한 물질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마을 일에 쓰거나 학교건물을 신축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사회 공익에 대한 헌신과 참여활동도 무척이나 열심히 한 집단이었다.

국립해양박물관에서는 이러한 제주만의 독특한 해양문화를 보여주고자 채바다 님, 홍경자 님의 기증 유물을 중심으로 '바당에서의 삶, 그리고 숨비소리'라는 제목으로 테마전시를 개최한다.(3.26~6.16)
채바다 님은 제주 전통 테우를 복원하여 제주바다를 탐험하였으며, 홍경자 님은 현재에도 제주시 한경면에서 해녀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제주도립 해녀박물관과 미술관의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장일석, 한중옥, 손일삼 화백님은 제주 해녀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이번 전시를 통해 거친 바당에서 삶을 일구고 살아가는 제주민과 해녀들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형기(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사)

전 시 명 바당에서의 삶, 그리고 숨비소리
전시기간 2013년 03월 26일 ~ 2013년 06월 16일
전시장소 국립해양박물관 4층

기증전시

도시어부가 都市漁父歌

– 바다에서 포착한 삶의 순간들

국립해양박물관은 2013년 4월 12일(금)부터 2013년 기증전 "『도시어부가 都市漁父歌』– 바다에서 포착한 삶의 순간들"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부산 영도 출신 저널리스트 박승근씨가 2012년 우리관에 기증한 사진을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작가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영도 하리 바다와 그 바다에 맞닿아 살아가는 영도의 도시어부들을 인터뷰하고 기록하였다.

이번 전시는 크게 공간과 사람 그리고 하루의 세 주제로 구성되었다.
하리 바다와 선착장, 배라는 공간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어부 · 해녀 · 그 가족과 하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하루하루가 작가의 눈을 통해 기록되었다.
하리의 바다, 도시어부는 단순한 주변인에서 저널리스트로 성장하며 지켜본 작가의 시선으로 색다르게 조망된다. 작가는 쉽게 다가가기 힘든 거친 바다의 인생을 지닌 사람들에게 조금씩 다가가 그 이야기를 사진으로 담아내었다.
이번 『도시어부가 都市漁父歌 』사진전을 통해 우리는 고향 바다를 바라보는 따스한 작가의 눈길을 따라 도시 어부들의 특별한 삶의 자취에 동행하게 된다.

동삼 하리(2001)

옛날을 회상하는 어부의 모습

불가사리만 올라오는 참담한 현실

24일간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1부 박승근 기증사진전『도시어부가 都市漁父歌 』(기획전시실)와 2부「포해 捕海 –바다에 사로잡히다」,「푸른 군인, 해군!」展(해양갤러리)으로 구성되었다.

전시기간 동안 직접 작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평일「작가의 Daily 도슨트」, 주말「작가와의 대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사진전 소개와 감상안내 등 작가의 작품세계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동서대학교 김경미 교수와 캐논 홍보팀 이홍기 총 감독의 특별강좌를 통해 사진에 관심을 가진 많은 관람객에게 특별한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전시는 영도 바다와 그 곳에 몸 담고 살아가는 도시어부를 바라보는, 건조하지만 때로는 따뜻한 작가의 눈길을 함께 느껴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김윤아(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사)

전 시 명 도시어부가 都市漁父歌 – 바다에서 포착한 삶의 순간들
전시기간 2013년 4월 12일 ~ 5월 5일
전시장소 국립해양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해양갤러리

작가소개

박승근 작가는 다큐멘터리 사진가로 미국 ZUMA Press 소속외신기자, Sea World SCUBA Center(부산/필리핀)의 수중 촬영담당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5년 〈코리아 포커스〉에서 사진기자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일요낚시〉, 〈시사저널〉을 거쳤으며, 일요낚시에 근무하던 시절 수중촬영을 바탕으로 입체적인 탐사지도를 만들어 처녀지 탐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성대학교 사진학과, 김해 문화의 전당 등에서 강의를 했고, 부산의 대표적인 사진연구모임 '理美知' 를 이끌고 있다. 2010년 이후 스포츠·문화·해양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취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번 도시어부가都市漁父歌 전시를 마치고, 그의 6·25 정전 60주년 기념 참전용사사진전『눈동자 너머에서 기억을 보다』가 6월28일부터 워싱턴 D.C.한국전쟁기념공원과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물소중이
기증자 : 채바다

소장품 이야기

물소중이(해녀복)

해녀복은 해녀들이 잠수할 때 입는 옷으로, 제주도 방언으로 '소중이', '물옷', '속곳' 이라고도 부른다. 고무 잠수복이 보급되기 전에 해녀들은 이와 같이 광목을 사용하여 만든 물소중이를 입고 물질을 하였다.

물소중이의 일반적인 형태는 몸통에 어깨끈(매천)이 있고 다리가 들어가는 곳(굴)이 양옆으로 뚫려있다. 가랑이 밑은 넓으면서 막혀있고, 오른쪽 옆은 트여서 끈이나 매듭단추를 달아 여밀 수 있게 했다. 옆트임에 달린 끈은 긴 끈과 짧은 끈이 있는데 긴 끈으로 체형에 맞게 조절하여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해녀들이 임신으로 체형의 변화가 와도 새로 장만하지 않고 품을 조절하여 입을 수 있었다.

물소중이는 옷감이 귀했기 때문에 한 장의 광목천을 이용해 만드는데, 긴 천을 대각선으로 접어서 몸통을 만들고 남는 조각 천으로 끈과 바대를 댔다. 바대란 힘을 많이 받는 옆구리 부분과 자주 닿아 닳아지기 쉬운 등과 다리 구멍에 천을 덧대어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다. 또 이음 부분에는 바느질로 다양한 장식을 하였다. 초기에는 흰색의 천을 그대로 사용하였지만 일하는 중에 쉽게 더러워지기 때문에 점차 옷감에 검은 물을 들여 만들었다.

물소중이는 맨몸에 입어서 가슴과 몸통만 가리고 팔·다리는 노출되는 짧은 단벌의 홑옷이다. 그렇지만 밑은 넓어 활동이 편하고 한쪽이 완전히 트여있어서 입고 벗기도 편한 매우 기능적인 작업복이었다. 또한 옷감이 귀했기 때문에 해녀에게는 물질 때 외에도 입는 일상복이었고, 맨몸에 착용하였기 때문에 속옷이기도 하였다.

물소중이는 해녀들이 한 번 만들어서 체형이 변하면 조절해서 입고, 헤지면 덧대고, 터지면 깁고 누벼서 옷감의 수명이 다 될 때까지 입는 해녀의 생필품이었다. '소로 못나니까 여자로 태어났다' 는 제주 속담처럼 해녀들은 소와 비교할 만큼 힘든 삶을 살면서도, 천에 물을 들이고 바느질로 장식할 만큼 물소중이를 단순한 작업복 이상의 의미로 생각하였다.

1970년대 고무 잠수복이 일본에서 들여와 널리 쓰이기 시작하면서 물소중이는 사라져갔다. 고무 옷은 물속의 추위를 막아주고 광목의 물소중이 보다 내구성이 크기 때문에 해녀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고무 잠수복의 도입으로 해녀들의 작업시간이 늘게 되면서 잠수병과 같은 직업병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국립해양박물관에서는 3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4층 테마전시실에서『바당에서의 삶, 그리고 숨비소리』전시를 개최하여 물소중이, 물적삼, 물수건 등 재래식 해녀복과 테왁, 빗창 등 해녀가 물질할 때 사용하던 도구들을 전시한다.

● **참고문헌** 『한국의 해녀』, 김영돈, 민속원, 2002.

백승주(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사)

박물관 사람들

예전에는 내가 사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시원하게 펼쳐진 영도의 앞바다를 볼 수가 있었다. 그런데 바다의 매립지가 완성되기 시작하면서 그 위에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특이한 모양의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보며, 그곳이 해양박물관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으나 그리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

개관소식을 듣고 방문해본 날, 박물관은 나의 예상과는 달랐다. 박물관 건물 자체가 작품이었으며, 건물 동선을 따라 돌며 보는 전시물이 그 전시자리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건물과 함께 움직이며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았다. 그리고 전시물들을 보며 너무나 무지한 나의 해양지식에 부끄러웠다.
수족관을 다녀본 경험만이 머리에 남아있던 터라, 해양박물관과 해양수족관을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해양에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있고, 그 분야마다 우리나라에 이런 역사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박물관을 가보고서야 알았다.
첫 방문에 나는 박물관에 빠져들게 되었다. 집도 가까우니 자주 오리라고 생각하고 돌아온 후, 박물관 홈페이지를 가끔씩 들어가봤다. 자원봉사자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고, 기쁜 마음에 지원하였다.

내가 지원한 곳은 도서관이었다.
바쁜 일상에서 밀려나기 쉬운 책을 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과, 집에서 놓친 바다의 전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매력으로 느껴졌다.
탁 트인 앞면으로 보이는 오륙도와 바다는, 책을 읽다가 피곤할 때 눈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최고의 회복제일 것이다.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서면 앞 공간이 트여있고, 그 곳에 박물관 전시와 관련된 서적과 자료가 전시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진열장을 지나가며 나는' 도서관 친구들'로 변신이 시작된다. 또한 다른 도서관의 서가처럼 단순히 책만을 수납 · 정리한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우리나라 조선기술로 제작한 선박 모형을 전시되어 있어, 공간적으로도 더욱 여유로움을 느끼며 책을 볼 수 있어 좋다.
도서 정리를 하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해양 역사와 문화 · 과학 · 환경 등을 다루는 주제의 다양함과 제목들의 신선함에 자극을 받을 때가 있다.
좁아진 관심사속에서 단조로워졌던 나의 삶이 이 책들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경험을 한다.
도서관 안에 함께 있는 어린이 도서 코너를 정리하며 예전과 많이 달라진 아동도서에 감탄을 할 때가 종종 있다.
예전에 나의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는 영도에 도서관시설이 빈약했으며,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은 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좋은 도서관이 어린이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참으로 기뻤다.
그래서 이곳에 찾아와 책을 읽는 아이들을 보며, 이 도서관의 책들이 그 아이들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기를 바라곤 한다.
책을 붙잡은 아이들의 모습은 항상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또한 도서관에는 작은 세미나실이 있어 신청을 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마침 몇 사람이 함께 공부할 일이 있어서 세미나실을 이용해 보았다. 조용하고 아늑한 위치에 깨끗한 구조로 되어 있어, 소규모의 회의나 수업에는 아주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방들이 잘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많은 방문객들이 이 장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책 정리를 하다가, 어떤 때는 비어있는 세미나실이 안타까워서 혼자 들어가 앉아 있기도 했다.

박물관 봉사 가는 날 아침에는 마음이 들 떠 아침부터 부지런을 떤다. 가족들도 그런 내 모습을 보는 것을 기뻐한다.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보기 좋단다. 내가 박물관 봉사를 하며 무엇보다도 즐거운 것은, 내가 미래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다. 전시된 유물은 조상들의 것이지만, 현재 그 유물은 다음세대들의 의식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물관에는 과거의 것들이 전시되어 있지만, 이 박물관을 드나드는 우리와 함께 이 유물들은 미래의 것이 된다. 어쩌면 2년전 간이식수술을 한 경험이 있어서, 미래를 산다는 것이 남다르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정말 작은 일이지만, 전체 박물관 운영에 한 알의 모래같이 작은 일이지만, 나의 봉사가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에 쓰일 것이라는 기대에, 매주 금요일, 기쁨으로 박물관을 들어선다. 그리곤 그 하루를 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보낸다.

이강운(국립해양박물관 자원봉사자)

박물관 교육행사

Happy Weekend 깜깜한 바다속 해미래 탐사여행

매주 토요일 14:00~15:30 /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 / 50명 / 제1강의실 / 인터넷 선착순 접수 / 무료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주말프로그램으로 심해탐사로봇 해미래에 대해 알아보며 우리나라 심해탐사과학기술의 발달과 심해생물, 심해자원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는 체험프로그램

김재영 PD가 들려주는 〈남극의 눈물〉

2013년 4월 11일(목) 14:00~16:00 / 1층 대강당

MBC 시사 교양 부문 PD의 생생한 방송 제작 체험담을 통해 자연 환경 다큐멘터리의 입체적인 감상을 도모하고, 인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 방법 모색해 본다.

2013년 기증전 "『도시어부가 都市漁父歌』 – 바다에서 포착한 삶의 순간들" 연계 교육프로그램

작가의 Daily 도슨트

2013년 4월 12일 ~ 5월 5일
매주 화요일, 금요일: 14시, 수요일, 목요일: 11시, 토요일, 일요일: 14시 / 기획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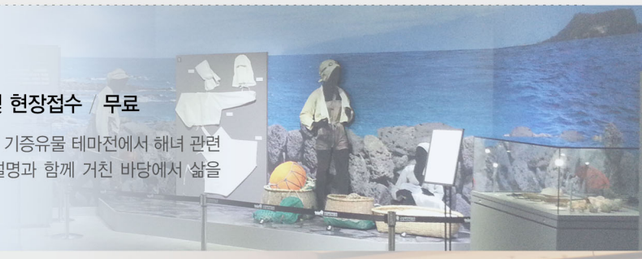
작가와의 대화

2013년 4월 12일 ~ 5월 5일
매주 주말(토요일, 일요일), 11시 / 사진관련 동호회나 단체, 관심 있는 모임 / 기획전시실 또는 강의실

갤러리 토크 테마전시 심층해설

4월 5일(금) 15:00~15:40 / 전체 / 20명 / 4층 전시실 / 인터넷 및 현장접수 / 무료

제주도만의 독특한 해양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바당에서의 삶, 그리고 숨비소리' 기증유물 테마전에서 해녀 관련 물품, 제주어로 도구 등 제주의 문화를 담은 기증유물에 대해 전시팀장님의 설명과 함께 거친 바당에서 삶을 일구고 살아가는 제주민과 해녀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전시해설 프로그램



제1기 해양박물관대학

2013년 3월 20일 ~ 2013년 5월 8일 매주 수요일 14:00~16:00 / 일반인 / 300명 / 대강당 / 인터넷 예약, 현장 및 전화접수 / 무료

문화를 통해 바다를 배우다.

해양문화와 관련된 문화강좌를 통해 우리나라 해양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고 및 지역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강좌프로그램

일 자	주 제	강 사
4월 3일(수)	자산어보, 그 안에 담겨진 물고기 이야기	김병직 (국립생물자원관)
4월 10일(수)	神의 바다와 별신굿	조정현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4월 17일(수)	한민족의 해양활동과 동아지중해 역할론	윤명철 (동국대학교)

일 자	주 제	강 사
4월 24일(수)	홍어장수 문순득 표류기로 본 해양문화	최성환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5월 1일(수)	문화유적탐방	–
5월 8일(수)	신안선과 신안해저유물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소식

KBS2 전국노래자랑 〈영도구편〉 방영 2013.3.3

지난 10월, 국립해양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되었던 'KBS 전국노래자랑 〈영도구편〉' 이 인기리에 방영되었습니다. 각종 촬영명소로 급부상한 국립해양박물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촬영유치를 통해 해양한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 새 식구, 14년 키운 홍민어 2013.3.7

부산시 기장 칠암군 소재의 횟집에서 애지중지 키운 홍민어 2마리를 국립해양박물관에 기증해주셨습니다. 민어가 더 큰 수조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기증을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1m의 큰 덩치를 자랑하는 홍민어를 국립해양박물관 수족관에서 찾아보세요.

국립해양박물관 경유 시내버스 주말 추가운행 2013.3.16

국립해양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박물관을 경유하는 66번 시내버스를 주말에 추가 운행합니다. 평일 운행차량보다 2배 더 늘려 10분 간격으로 운행되어 박물관을 찾아오는 길이 한결 편리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 국립해양박물관 자원봉사자 출범 2013.3.19

전시장 · 어린이박물관 및 해양도서관 관리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을 도와주실 국립해양박물관 자원봉사자 15명의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자원봉사자 분들은 3월 26일부터 1년간 국립해양박물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소속변경 2013.3.25

국립해양박물관이 5년 만에 부활한 해양수산부에 새로운 둥지를 텄습니다. 부활하는 해양수산부는 해양 정책, 해운 · 물류, 수산, 항만, 해양환경, 해양 R&D(연구개발), 해난 심판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해양과 문화, 해양활동의 역사와 비전을 제시하는 데에 국립해양박물관이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가족영화 무료상영 '해양가족극장' 2013년 4월

매주 토요일 4시, 바다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하여 바다를 소재로 한 영화 및 다큐멘터리를 무료상영 합니다. 상영일정 참고하셔서 가족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해피 피트2 / 바다소년 오대양 / 새미의 어드벤쳐 / 앨빈과 슈퍼밴드3)

관람후기

해양박물관대학 첫 강의 후기

저는 동의대학교 문예창작학과 학생으로, 해양박물관대학 1기생으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해양박물관은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평소에도 틈틈이 들렸습니다. 공원이 잘 되어있어 바람 쐬며 걷기에도 좋고, 도서관까지 갖추어져있어 개인적으로도 마음에 들었었죠. 최근에 방송을 통해 해양박물관대학 소식을 듣고, 마침 시간도 있으니 들어보자는 생각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강의는 총 8번인데 6강 이상 수료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하루 2시간이라는 점에서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대학교수님들도 많이 강의하시고, 문화유적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더 끌렸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영도에서 살아온 영도인으로서 늘 바다와 함께해왔고 바다를 좋아했습니다. 바다, 해양과 관련된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소설가를 지망하는 나로써 지적호기심을 새로 자극하진 않을까, 라는 생각도 마음 한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심은 있지만 그만큼의 지식이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기대 반 설렘 반으로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또래의 젊은 사람들은 많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강의를 들으러 왔으니 열심히 들어야겠다고 다짐했죠. 예쁜 책까지 받으니 괜히 더 의욕이 생겨서 나름대로 필기도 열심히 하며 들었습니다.

강의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강의를 해 주신 교수님께서 해양문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해주셨는데요. 해양문화란 무엇인지, 역사적으로 해양문화는 어떻게 받아 들여져 왔는지, 어떤 식으로 해양문화가 발전했는지 등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양 쪽은 물론 역사도 좋아하는 편이라 오랜만에 세계사 정리를 해주시니 반가운 만큼 재밌기도 하였고, 몰랐던 역사적 사건이나 해양문화에 대한 인식 등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는 육지중심의 역사였다는 것, 해양 쪽에 다소 무신경했던 우리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알게 되니 새삼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바다의 중요성, 해양과 관련된 수많은 기록과 사례들, 지금의 부산과 바다를 접하는 도시들을 잘 발전시키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까지. 앞으로는 해양인프라가 더욱 필요해지고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것 등을 세계 각지의 사례를 듣고 나니 영도인으로서 괜히 마음이 끓어올랐다고 할까요, 내가 나서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그런 신기한 의욕이 생겨났습니다. 내가 영도와 부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제가 생각하기에 역시 저는 소설가 지망생으로써 해양문화를 공부해 그걸 소설로 승화시키는 방법이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물론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만으로 왠지 기분이 뿌듯해졌습니다. 평소 저는 친구들에게도 영도가 좋다며 얘기를 많이 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영도를 사랑하는 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평소 내가 영도를 생각하는 만큼, 뭔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 조금이라도 실천해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지요. 아직은 아마추어 글쟁이지만, 훗날 제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현실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고도 반가운 바다, 해양과 관련된 강의를 들을 수 있어 무엇보다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수가 참여하는 깊이 있는 수업을 선호하는 편이라 대강당에서 다수가 강의를 듣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소란스러웠습니다. 다행히 어른들이라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요. 혹시 앞으로의 강의에 가능하다면 강사님들과 개인적이고 깊이 있게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무엇보다 강의 해주신 교수님께 재미있고 쉽게 강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희선(제1기 해양박물관대학 수강생)

바당에서의 삶,

Life at Badang[sea], and Sumbisori[breathing sound]

그리고 숨비소리

2013.03.26 ~
2013.06.16

국립해양박물관 4층